

# 대회사

李 啓 錫  
大韓韓藥協會 會長



‘하늘은 높고 말은 살진다’는 天高馬肥의 季節을 맞아 會員 여러분과 韓藥業界 關係者 여러분을 모시고 「2002 韓藥學術大會」를 開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協會 創立이래 처음으로 開催되는 이번 大會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國政에 바쁘신 중에도 參席해 주신 金成豪 保健福祉部長官님과 大韓韓醫師協會 安在圭 會長님, 食品醫藥品安全廳 李榮純 廳長님, 主題發表者이신 韓大錫 서울大學校 名譽教授님, 本協會 名譽會長이신 歷代會長 鄭泰雄 金在德 李洙健 姜容鉉 尹濟殷 會長님, 諮問委員이신 南景弼 國會議員님, 金聖順 國會議員님, 尹汝儁 國會議員님, 崔善政 前福祉部長官님, 朴在潤 江山建設 會長님, 趙洪來 辯護士님, 專門紙言論人 등 來賓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는 道德的 價値를 尊重하며 우리 祖上들이 數千年을 내려오면서 疾病과 鬭爭속에서 不斷히 創造되고 豊富화된 民族醫藥을 굳건히 지켜오면서, 許浚선생의 後裔요, 이 時代의 知性人이요, 선비요, 君子임을 자랑하며 矜持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5千年的 燦爛한 傳統과 悠久한 歷史 속에서 우리 民族이 健康한 삶을 營爲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先輩님들의 숨결과 숨은 努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歷史를 돌이켜보면,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등 수많은 外勢의 侵略으

로 인한 苦痛과 試鍊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韓藥文化를 꽃피워 왔으며, 日帝 強占期에는 日本의 韓醫藥抹殺政策으로 인해 逼迫과 抑壓을 당하면서도 우리 先賢들의 強忍한 意志와 知慧로 寶業을 굳건히 지키고 繼承·發展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使用하는 處方 하나하나에는 우리 先賢들의 努力과 땀과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1915年 지금의 서울대 藥學大學의 前身인 '朝鮮藥學講習所'를 設立하고, 1949년에는 지금의 慶熙大 韓醫科大學의 前身인 '東洋醫學專門學院'을 設立하는 등 學問研究와 後進養成에도 지대한 貢獻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悠久한 歷史的 背景과 더불어 正統 韓藥人이라는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정작 우리의 存在를 알리고 位相을 높이는 데에는 消極的이고 疎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學術大會는 깊은 意味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問題를 克服함에 있어서 成功的인 大會는 우리 韓藥의 生存과 發展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硬直性과 衰退現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世界의 歷史가 그러했듯 힘없는 弱小國은 強大國의 支配를 받으면서 온갖 逼迫과 苦痛을 당하는 前轍을 밟아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983年 이후 韓藥業士 資格試驗制度가 事實上 死文化됨으로써 後進養成이 어려워진데다 會員들의 高齡化에 따른 廢業 死亡 등으로 會員의 減少와 함께 會勢는 날로 弱化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山間 奧·僻地에 배치되어 犧牲을 強要당하면서도 制度改善事業에 대한 希望을 가지고 긴 歲月동안 많은 努力을 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 民族醫藥인 韓藥의 深奧한 處方과 矜持를 지켜온 우리 韓藥業士는 우리 民族의 健康을 지키는 一線에서 獻身하여 왔으며 우리의 보살핌으로 健康을 지켜온 우리 民族은 우리에게 한없는 愛情을 所重하게 여겨 왔습니다

激變하는 時代에 여러 側面으로 우리의 所重한 資産을 歪曲하고 縮小 내지는 矮小化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의 位置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에 對抗하여 우리는 堂堂하게 國家와 國民 모든 保健醫療 團體들로부터 尊重과 尊敬을 받아야 할 傳統과 矜持가 있음을 滿天下에 宣布하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力量을 集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世界化, 開放化, 協力化의 時代입니다. 우리 韓醫藥이 世界 傳統 醫藥市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應해야 합니다.

또한 時代的 흐름에 적절하게 對處하면서, 變化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變化를 豫測하고 한발 앞서 準備해야 합니다.

古代 이집트나 中國인들이 週期的으로 發生하는 洪水와 氾濫하는 江에 맞서서 이를 統制할 수 있게 됨에 따라 偉大한 起源을 열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밖으로는 最近 中國이 WTO에 加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保健醫療서비스 分野는 물론 모든 分野에 걸쳐 開放壓力과 協商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韓藥製劑 天然物 新藥 關聯制度의 施行과 더불어 健康機能食品法制定, 韓醫藥 育成法案 등으로 우리 固有의 業務를 侵害당하는 切迫한 危機에 直面해 있습니다

모든 物質이 生成 消滅되는 自然界, 이 自然界에 적극적으로 對處하여 온 人間, 그 사람에 의하여 發生하는 모든 知識과 學問,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固着하여 한 모습으로 變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現實은 停止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存在는 끊임없이 生成하며 消滅되는 過程上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積極的으로 對處하고 신속히 適應하는 자는 生存하고 保存되는 知慧를 배워야 합니다.

지난 30餘年間 우리나라에 일어난 社會變化와 變動은 모든 分野에서 눈부신 發展을 하였습니다 특히 保健醫療서비스 分野도 專門化·細分化 職能化 多樣化하여 發展하였습니다.

韓藥業士는 우리나라의 保健醫療 서비스 制度가 脆弱하였던 時代에 無醫藥面 解消政策의 一環으로 立法施行한 制度입니다만, 2000年 基準 全國에 保健所 243個所, 保健支所 1262個所, 保健診療所 1906個所로 無醫藥面은 完全 解消되어 立法施行 當時의 與件과는 完全히 달라진게 現實입니다.

數十年間 國民健康에 寄與한 功勞를 認定하여, 韓藥業士만 惟獨 過去와 같이 營業所 移轉을 規制하고 있는 것은 時代的 要求에 逆行할 뿐 아니라 現實的으로 不合理한 毒素的 規制이므로 이 規制는 果敢하게 除去되어야 합니다

이제 韓方政策도 中長期 發展計劃을 樹立하는 등 많은 變化가 進行되는 것은 多幸한 일입니다.

우리 韓藥協會가 解決해야할 課題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지켜온 傳統民族醫藥인 韓藥業을 世代를 이어 繼承·發展·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 平生을 바쳐 國民保健向上을 위해 묵묵히 山間 奧·僻地에서 奉仕해오시는 會員님들이 마음 便安하게 그리고 自由롭게 마지막으로 國民保健向上을 위하여 奉仕하기 위해서는 全國 自由移轉과 藥事法 제36條 2項은 改正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保健醫療서비스 傳達體系는 洋方의 경우 醫·藥分業으로 醫 藥을 嚴格히 區分하고 있어 그 制度가 先進國 水準으로 定着되고 있으나 韓方의 경우는 醫 藥分業이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이며 業務領域도 매우 混亂스러워 韓藥業士 韓藥師 韓藥調劑藥師로 되어 있어 이를 結合된 藥의 單純 傳達體系로 整理하여야 합니다

地位가 認定되지 않는 集團이나 期待에 훨씬 못 미치는 地位를 받아들 이도록 強要받는 集團은 存在目的을 喪失하고 安定된 秩序에 不滿을 느끼게 되어 가슴에 사무친 怨恨이 子孫에게 傳受되고 欲求不滿도 다음 世代로 累積되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理致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 모두는 過去를 克服하고 또 그것을 超越하기 위해서 現在에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切迫한 狀況에 있습니다.

公正하고 公平한 制度的 改善과 우리의 人格과 權益이 尊重되어야 합니다. 發展은 便利한 條件에서라기 보다는 不利한 條件이기 때문에 더 크게 發展시켜야 합니다.

希望을 가지고 國民保健向上을 위하여 더욱 誠實하게 奉仕하며, 協會와 韓藥의 發展을 위해 더 열심히 學問研究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2千餘 全國 會員의 平均年齡은 66歲로 集計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傳統民族醫藥을 지켜온 韓藥業士 世代는 지나갈 것으로 豫測되나 우리가 이어받았고 지키며 또 전해 주어야 할 韓藥의 深奧하고 獨創的인 資産을 學問的으로 體系化하고 世界 唯一한 專門的 特性을 昇華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後孫에게 더욱 더 所重한 資産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時代的 義務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本協會는 지난 6월 10일 韓國韓醫學研究院과 '優秀經驗方 蒐集'에 관한 用役契約을 締結, 事業을 進行 중에 있습니다. 會員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시는 經驗方과 秘方을 公開하여 知的 所有權을 가지시기를 當付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召命을 實體的으로 具現하는 努力의 그 첫걸음으로 오늘의 이 學術大會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崇高하고 嚴肅한 事業을 위하여 우리 함께 邁進하여 貴重한 歷史를 함께 創造합니다.

끝으로 이 大會를 빛내주시기 위해 參席해 주신 金成豪 長官님을 비롯한 來賓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本大會를 準備해주신 本會 名譽會長님 會長團 監查團 16個 市道支部長님 蘇秉昌 準備委員長님과 任員 여러분 그리고 千里길도 멀다 하지 않고 參席해주신 會員 여러분, 대단히 感謝합니다.

2002年 10月 25日

# 인사말

蘇 秉 昌  
學術委員長, 準備委員長



菊花香氣 그윽한 豐饒의 季節을 맞이하여 大韓韓藥協會 「2002 韓藥學術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本大會를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勞苦를 아끼지 않으시고 物心兩面으로 心血을 기울이신 李啓錫 大韓韓藥協會 會長님을 비롯한 任員 및 會員 여러분 대단히

感謝합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21世紀에 접어들어 世界는 諸分野가 빛의 속도로 急變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中國의 WTO 加入으로 우리 韓藥界에 큰 試鍊이 豫告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큰 變化를 克服하기 위해 우리 회원 모두의 不斷한 勞力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業權事業이나 學術研究 등에 너무나 消極的이었습니 다. 이제부터라도 中央會長님을 中心으로 一致團結하여 愛協精神을 가지고 韓藥協會의 存在를 對外에 알리고 韓藥業士라는 自負心과 位相을 提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變해야 한다는 李啓錫 會長님의 會勢強化의 哲學을 바탕으로 會員 모두는 이제 생각부터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本 學術大會를 통하여 位相을 드높이고 비전을 提示하는 契機가 마련되어 團結된 會員像을 構築하고, 살아 움직이는 協會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本

■ 2002 韓藥學術大會

大會 推進에 獻身하신 中央會長님과 任員님들의 勞苦에 對하여 뜨거운 激勵의 拍手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韓藥協會 學術委員長으로서 中央會長님과 歷代 委員長님들의 愛情어린 指導鞭撻과 全 會員님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關心 속에 學術事業은 大過없이 잘 進行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任員님들과 會員 여러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學術大會가 和氣靄靄한 가운데 成功裏에 마저질 수 있도록 會員 여러분께서 積極 協助해 주시기 當付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健康과 家庭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며 人事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 치사

金 成 豪  
保健福祉部 長官



존경하는 이계석 한약협회 회장님!

또한 이 대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한약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제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약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약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신 한약업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의약은 그 동안 많은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특히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반이 열악하던 시절 한약업사 여러분께서는 전국의 농어촌 등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혼신이 힘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내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도 지대한 공헌을 해온 한의계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술사업을 통해 회원간 한의약관련 정보교류를 위해 학술지를 매년 발간해 왔고, 지난 1999년에는 수천년에 걸쳐 우리민족의 지혜와 경험이 살아 숨쉬는 우수 경험방을 수집하여 '동의험방신찬'을 발간함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세에 남기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한약협회 회원 여러분!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임과 동시에 앞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국



제 경쟁력측면에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과 함께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한방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좋은 한약공급을 위하여 한약의 재배에서 제조, 유통단계를 포함한 총체적인 한약품질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아래 국산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불량한 약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약협회를 포함한 한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한약 유통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인 통상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WTO회원간의 DDA협상전개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감안 시에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명제로 대두되고 있어 세계 한의약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한의약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의약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중장기 한방육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 속에 다가가는 「한방의 대중화」,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방의 과학화」, 세계한의약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방의 세계화」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약협회 회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한의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약학술대회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국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약협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한한약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 축사

安 在 圭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녕하십니까?

이계석 대한한약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한약의 전문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2002 한약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천년 전통의 정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오면서도 일제의 침략 이후 현대에 이르러 서양의약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늘 소외되고 백안시되었던 우리 한의약의 주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약일체의 한방의약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강제 분할되어 그 일부를 지켜오신 우리 한약협회 회원들의 역사는 더욱 남다른 감회와 아픔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조명은 물론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이제는 한의약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는데, 또 다시 WTO라는 새로운 국제적 파도가 엄습하여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한의약은 가장 한의약다운 방향으로 정착되어질 때 진정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하는 역할의 중심에서 자랑스런 전통 유산으로 세계화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목과 근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한의약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현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발표자 여러분들과 학술대회를 준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시 한번 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 天寶의 뿌리 지키리

李 昌 煥  
(健一堂韓藥房)

우리의 아름다운 山河  
기나긴 五千年  
빛나던 歷史위에  
康健하신 祖上님  
神秘의 仙草로서  
살아 오시었네

權域山川에 自生草  
地下萬尺에 숨은 寶藥  
하늘을 나는 새와 곤충  
深山溪谷에 숨은 動物들

이땅에 存在하는  
數萬가지 各種 藥材  
그 自性を 깨우쳐  
人類에 공헌한 宗主國의  
偉大하신 祖上님이시여

슬기로우신 智慧로서  
地球村 은 人類에게  
第二의 許浚先生이 되시어  
어느 누구도 흉내없는  
眞人の 聖善을 베푸는 것

우리들 二千餘命의 韓藥會員  
유구한 歲月에 傳統으로  
그 命脈 後孫에게 傳承시켜  
偉大한 祖上으로 남으소서

들길에서 몸이 가렵도록  
개미, 모기, 벌, 비단지, 풀췌기  
만가지 곤충이 우리들을  
괴롭혀도 몸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가부좌하시어 正覺에 道로서  
이 어지러운 世上에도 天寶는 永存하니  
太陽같이 밝은 빛으로 사시옵소서.

- 天獄山房에서 -

## 祝 2002 韓藥學術大會

誰侮吾儕韓藥房  
論文盡是究深長  
蟲魚亦用活人命  
草木應供治病方

누가 우리 한약방을 업신여기랴  
논문은 모두 연구를 깊게 했네  
蟲魚도 人命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草木도 병을 치료하는데 이바지한다

實證古今經驗說  
公開爾我秘藏囊  
五行四象諸般理  
廣記相傳最善良

옛과 지금의 경험한 이야기 실증하고  
너와 나의 비장했던 주머니 공개한다  
五行과 四象의 모든 이치를  
넓게 기록해 서로 전하는 것이 가장 선량하네

松汀 金 教 熙 (回春堂韓藥房)

神農遺業至吾東  
澤被蒼生太古同  
仁術無邪千世續  
學文有正萬年隆

神農氏의 遺業이 우리 東方에 이르러  
蒼生들이 惠澤입음은 太古로부터 한가지였네  
仁術은 邪가 없으니 千世에 이어지고  
學文은 바름이 있어 萬世토록 隆興하도다

草根穀菜求人命  
木實蟲魚療病躬  
四象五行深理究  
杏林秘驗永傳中

풀과 뿌리 穀食과 菜蔬로 人命을 求하고  
나무와 열매 벌레와 고기로 病든 몸 낫게 하네  
四象醫學과 五行의 深奧한 理致 窮究하고  
杏林의 秘方과 驗方을 永遠히 傳하는 中이로다

時隱 蘇 秉 昌 (東仁堂韓藥房)